

# 라온아띠 여름 학교 시작하다



<사진 1> 바공포옥 초등학교 아이들

필리핀 아띠들의 본격적인 교육 자원활동이 4월에 시작했다. 4월 11일에 등록을 시작해서 주 5일, 하루에 2시간 씩 바공포옥, 씨엠 아즈카라테 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재미와 교육,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수업이 목표이다. 타갈로그-영어-한국어 라는 언어 장벽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 자원활동가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A5~A10에서 계속

**바공포옥 초등학교 특집!**

- FUN FUN한 여름학교, 구경 오세요 A5
- 올 학교 E.T (English Teachers) A6
- 애들아, 학교 가자~ A7
- 교실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 A8
- 벌써 한달, 바공포옥은 어떤가요? A9
- C.M.Azcarate
- 우리마을 초등학교에서 활동 시작 A10

## 필리핀에서 맞는 부활주일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파블로시티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또한 휴일을 맞이해 평소에 방문할 수 없었던 여러 호수들도 방문했다.

A2에 계속

산파블로시티 외곽지역 발록 쓰레기 산이 있다. 이곳에서 생필품 기부행사가 열렸다.

A4에 계속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  
그 많던 계란은 다 어디로 갔을까?

A2

라온아띠, 자연을 벗삼다!

A3

발록 쓰레기 산에 기부자가 나타났다

A4

## COMMUNITY ORGANIZATION IN AURORA

아우로라는 필리핀 최북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장소이다. 아우로라에서도 알칼라라는 마을이 YMCA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곳에는 이나우복 티 알칼라 (Inna Ubbog Ti Alcala)라는 어머니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YMCA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돼지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커뮤니티 조직을 배우러 아띠들은 4월 16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이곳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 조직과 발전의 기본은 구성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내부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 일원이 되어야 한다. 아띠들은 알칼라 커뮤니티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어머니들과 부대끼며 정을 나눴다. 이뿐 아니라, 아우로라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사진 2> Maria Aurora 의 해변에서 필리핀 7기 아띠들 (왼쪽부터 강호, 정원, 시연, 의주, 화영)

장례 문화, 펌프질, 별보기 등 쉽게 해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A11~A14에 계속

- 송정원 단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 A11
- 마리아 아우로라, 신기하다 마리아~A12
- 오로라!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다! A13
- 교육활동, 예상치 못한 난관들 A14

# 라온아띠 7기 필리핀팀 4월 일정표

판타스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임팩트있고, 짜릿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3월보고서 준비	2 * 3월보고서 준비 * E/T Class	3 * 3월보고서 준비 * E/T Class	4 * 3월보고서 준비 * pineapple farm	5 * Meeting * Baloc	6 * Holiweek * Meeting	7 * 3 Lakes * 3월보고서 준비
8 * Egg Hunting * 3월보고서 준비	9 * Meeting * 3월보고서 준비	10 * 바공포육	11 * 바공포육 * E/T Class	12 * 바공포육 * E/T Class	13 * 바공포육 * E/T Class	14 * Meeting * Tropical Party
15 * SPC->Manila * 아우로라 O.T	16 * Manila->Aurora * O.T	17 * O.T * Funeral	18 * Funeral * Ocean	19 * Picnic	20 * Nanay Community * Class	21 * Nanay Community * Class * Harvesting
22 * Nanay Community * Class * Ocean	23 * Closing day	24 * Aurora->SPC	25 * 바공포육 * C.M.A	26 * 바공포육 * C.M.A * Funeral * E/T Class	27 * 바공포육 * C.M.A * E/T Class	28 * 마미 프레젠테이 션 준비
29 * 마미 프레젠테이 션 준비 * meeting	30 * Batanga City Fiesta					

## 바탕가시리 FIESTA!!



마을 전체가 즐기는 축제!! 2012년 4월 30일 12시부터

현장르포

#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

## 예수님 부활을 퍼레이드로 구성해...

지난 6일 금요일. 산파블로시티 성당 앞 광장에서 퍼레이드가 열렸다.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로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중요한 날로 여겨진다. 다른 지방 사람들과 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광장 앞 도로는 차량이 통제되었다.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뒤,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목상이 퍼레이드 차량에 장식되어 있었다. 퍼레이드 차량 앞으로는 군악대가 지나갔는데 그 중에는 로마병사와 예수님의 모습으로 분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퍼레이드 차량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는데 사람들의 손에는 촛불이 하나 둘씩 들려 있었다. 이러한 행진은 성당 안을 돌면서 끝이 났다. 성당 안에서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신부님이 향을 피우고 성수를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있었다. 아띠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퍼레이드 차량에 장식된 꽃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모두들 안전하게 인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성당 건물 안에서 예수님 석상에 손을 대고 기도를 드린 후 우리들의 퍼레이드 행사는 모두 끝이 났다.

송정원 단원

&lt;kaizen20@cyworld.co.kr&gt;



## 그 많던 계란은 다 어디로 갔을까?

### 필리핀의 부활절 Egg Hunting

지난 8일. 부활절을 맞아 YMCA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YMCA 식구들, 제인 선생님, 맘세실, 띠따 율마가 아띠들과 함께했다. 제비 뽑기로 2인1조 팀을 결성했고, 모두들 계란 사냥에 나서 뒤뜰과 마당을 누비며 꼭꼭 숨겨져 있던 계란을 찾아냈다.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시연&제프리 팀과 정원&버니 팀이 각각 3개의 계란을 찾아 우승했고,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기뻐하던 것도 잠시, 각각의 계란에는 쪽지가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는 진실(Truth)과 결과(Consequence)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진실에는 팀에서 누가 가장 무서운 지, YMCA

사무총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장난스러우면서도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결과에는 칼라만씨(레몬) 먹기, 팔 굽혀 펴기 20개 등 다 함께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지령들이 적혀있었다. 부활 주일은 단순한 휴가 기간이 아니었다. 필리핀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큰 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모두가 함께 모여 즐기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송정원 단원



# 라온아띠, 자연을 벗삼다!

현지인들조차도 다 방문해보지 못한 호수 3 곳을 방문해...

산파블로시티에 한 달 이상을 머무른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이제는 트라이시클도 척척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리얼 현지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산파블로 시티에는 총 7개의 호수가 있는데 지난 달 나무 심으러 갔던 삼팔록(Sampaloc)호수가 일곱 개 호수 중 가장 큰 호수라고 한다. 또 이 호수 외 나머지 6개 호수는 시청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가 볼 수 있어서 현지 사람들조차 쉽게 가보지 못한다고 한다.

오늘 탐방하게 될 호수는 6개 중 팔락킨(Palakpakin)호수, 모히캡(Mohicap) 호수, 부낫(Bunot)호수이다. 특별히 오늘은 YMCA와 관련된 여성 청년들과 같이 탐방을 하게 되었다. 또 바랑가이 6-D에서 차량을 지원해주어서 편안하게 탐방을 즐길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탐방한 곳은 박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팔락킨(Palakpakin)호수. 호수를 이용해 업을 삼고 있는 이들이 작은 나무판자 배를 이용해 생선을

잡고 있던 모습이 생생하다. 뜨거운 햇살 아래 검게 그을린 몸으로 자기 팔뚝만한 틸라피아 고기를 척척 낚는다. 가까이 가보진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다음 장소로 이동!

다음 장소는 모히캡(Mohicap) 호수, 처음 차에서 내렸을 때, 숲 속엔 왜 들어가나 했는데 울창한 숲만 이어질 것만 같은 이곳에 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넓디넓은 호수가 나타났다. 그 속에 작은 집을 짓고 수상가옥을 영유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이곳에서 밤부(Bamboo)라는 배를 탔다. 대나무 몇 개를 잘라 만든 이 배는 아슬아슬 빠질락 말락 한 게 참 위험해 보였는데 막상 타고 나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 발등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와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의 햇살을 한껏 받으며 타는 뱃놀이란...

마지막으로 간 곳은 부낫(Bunot)호수. 이곳에서도 역시 호수를 주위로 작은 어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깊은 호수 바로 너머에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마



세계 7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게 되지 않을까 장난스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5월에는 남은 3개의 호수를 찾아간다고 한다. 비록 호수에서 삶을 터전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해서 죄송스런 마음이었지만 이로서 산파블로시티에 더욱 깊숙이 발을 담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의를주 단원  
<korea16ft@naver.com>



# 발록 쓰레기 산에 기부자가 나타났다

## 기부받은 물품들을 나눠주기 위해 아띠들 총출동

산파블로 YMCA 사무총장인 크리스티가 지속적으로 교류관계를 맺고 있던 발록(Baloc)에 각종 생필품을 보낼 기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라온아띠는 이 물품을 전달해주려 급히 발록으로 파견(?)보내졌다.

아띠들 생각에, 우리가 교류관계를 맺고 있던 발록 커뮤니티에 학용품을 전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와 달리 트라이시클은 덤핑사이트로 갔고 그곳엔 주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코이카의 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었다. 아띠들과 일행이 일렬로 서서 누들, 각종 소스, 쌀을 하나씩 엮어 차례 차례 넘겨주고, 주민들이 한 무더기로 모여서 이름을 부르며 해당자가 나와 음식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주민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나눠주기만 했던 활동에 팀원들은 각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팀원들은 대체로 이 활동이 보여주기 식 자원 활동인 것에 동의했다.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발록 커뮤니티에 단순한 물품 나눠주는 사람으로 동원된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의 불편했던 감정들을 숨기고 활동에 전념했다. 이 물품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고, 우리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무기명 기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자신의 선행이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면 만족하기 때문.. 이번 발록 기부자 역시 자신의 선행을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발록 주민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YMCA와 라온아띠가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음식전달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등 교류에 중점을 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발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우리가 발록 커뮤니티에 가야 하는 이유를 팀원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 발록 청년들을 우리가 가르침으로서 그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불편했던 이 마음들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발록에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가지 않는 동안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들을 만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의주 단원



**망고가 최고! 망고 1kg 999원!!!**

**파인애플 1개 999원!!!**

**아냐, 파인애플이 최고!**

떡어도 떡어도 왜 망고가 자꾸 팽기는지... 약탄건 아니죠?  
(25세 남, 농부)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하늘로 뽕 갈 것만 같아요  
(23세 여, 주부)

**그럼 둘 다 먹어야지! 싸게 해 줄게~** 문의 555-5555



바공포옥 초등학교 특집!

# FUN FUN한 여름학교, 구경오세요~

바공포옥 여름학교, 그 비하인드 스토리



바공포옥 초등학교는 지난 라온아띠 6기부터 피딩 프로그램 (Feeding Program)으로 관계를 다져온 곳이다. 우리 7기는 3월부터 피딩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는데, 여름방학을 맞게 되면서 'summer class'를 구상하게 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여름방학이 3월말부터 시작해서 5월 말에 끝난다.)

이 학교는 산파블로 시티 내 모든 학교 중에서 학업성취도가 하위권에 속한다. 학생들은 주로 철도 근처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고 학교에는 창의적인 교육 자료 및 교과서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년은 높음에도 아직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알파벳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학생들도 많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장 교장선생님께서 영어 읽기에 초점을 맞춘 'literacy program'을 제안하셨다.

여름학교는 정규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이기에 우리는 최대한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 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예체능 수업을 접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은 터라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을 접목시킨 영어수업을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정한 이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예체능을 결합한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한다.
- 2) 자신을 표현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3) 영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2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최대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화영, 김시연 단원  
 <ehwayoung@nate.com>  
 <siyeon.kim.kr@gmail.com>



바공포옥 초등학교 특집!

# 올 학교 E.T (English Teachers)

## 제인 선생님과 크리스찬 메이의 이야기

### 1. 제인 선생님의 이야기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우리)이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우리는 걱정이 많았다. 크리스티는 우리를 도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들을 찾았고 이 때 발견한 것이 바로 제인 선생님이다.

제인 선생님은 현직 선생님이면서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다년간의 선생님께서 경험과 공립학교에서 쓰기 어려운 창의적인 수업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셨다.

제인 선생님과 미팅을 했을 때 우리는 선생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계획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선생님의 계획은 체계적이고 훌륭했지만 우리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제인 선생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고 연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 교육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가 우리식대로만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 우리가 가진 방식과 현지의 교육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의 생각이 합쳐지면 좀 더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선생님과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목표를 공유했다.

### 2. 크리스찬 메이의 이야기

우리 옆집 사는 큰 딸인 메이는 현재 산파블로 시티의 명문 카노사 컬리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수재이다. 메이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미래의 수학 선생님을 꿈꾸고 있다.

우리는 메이에게 함께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선생님을 꿈꾸는 메이에게 이 활동이 값진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다.

사실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메이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따갈로그어가 서툰 우리들의 말을 아이들에게 통역해주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며 아이들을 통솔하고



Teacher Jane



Christian Mae

친절한 언니가 되어 잘 가르치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 메이를 자기 반에 데리고 오려고 경쟁을 하기도 한다. 메이가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 라온아띠 필리핀팀 6번째 멤버 메이. I love you!

이화영 단원

## 더 이상 혐오식품이 아니야!! 신비의 맛 발룻! (\*역회하기 직전의 달걀을 삶은 것)



달걀 껍질을 하나씩 까면서 절로 웃음이 나오는 이 음식. 먹을수록 똥의 질을 느껴주세요



늘을 감아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 먹을수록 똥의 초점을 지을 수 있어요

쫄리쫄리 모두 이 음식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바공포옥 초등학교 특집!

## 얘들아, 학교 가자~

현재 3개의 레벨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

이번 여름 학교는 4월 11일부터 학생들의 접수가 시작해, 4월 말 현재 105명 가량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 주 5일로 진행되는 수업에 매일 출석하는 학생들은 약 40명 정도이다. 아이들의 연령대는 적게는 4살부터 많게는 10살까지로 다양하다. 유치원생부터 예비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연령이 다양하다 보니 수업은 3개의 레벨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업은 정규 학교수업시간에 따라가지 못했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돌아오는 6월에 시작되는 새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바공포옥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될 유치원생들의 선행학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kinder level의 학생들은 하루 평균 15명 정도이다. 알파벳을 쓸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에 A, B, C부터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아직 연필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수업은 거의 개인 교습이다. 알파벳을 몸으로 표현하고,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그 발음을 익히는 활동을 함께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알파벳을 이용한 좀 더 다양한 영어노래와 게임을 수업에 이용할 계획이다.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받은 현재 요일이나 신체부위 등 기본적인 단어를 배운다. 이 아이들은 아주 기초적인 영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숫자, 색깔, 동물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다양한 영어 단어와 따갈로그어 단어를 병행하여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맞추기, 달력 만들기 같은

활동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한 반을 구성해서 기초 문법을 배우고 있다. 이 반의 경우 100개의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등의 문장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문장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아이들이 수업에 쉽게 지루해하고 송정원 단원이 혼자 수업을 맡고 있어 수업의 흐름이 쉽게 끊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행맨, 빙고게임, 단어나 열 게임 등을 이용해 최대한 수업을 재미있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미있는 게임을 이용해 수업할 계획이다.





바공포옥 초등학교 특집!

# 교실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

## 수업 외 활동에 관하여...

바공포옥 여름 학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항상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를 한다. 먼저 국가(루팡 히니랑, Lupang Hinirang)를 부른 후 기도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체조를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변형한 준비운동을 한다.

준비운동 후에는 부테테송 (Butete Song)을 율동과 함께 부른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율창이 송을 따갈로그어로 '직접' 번역한 것이다. 아침 운동이 끝나고 잠깐 동안 하는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 손을 짹짹 뺨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유익한 활동이 되고 있다.



필리핀에서 금요일은 Art day라고 해서, 원래 수업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해간다.

우리가 처음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신문지 위 올라가기였다. 아이들을 4개 조로 나누어서 종이를 접으며 그 종이에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다. 아이들이 서로를 업고 뚝뚝 뭉쳐서 작은 책만한 종이 위에 올라갔다. 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함께 협동해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우리 아띠들은 아이들을 들쳐 업고 메고 종이에 올라가느라 서서히 죽어갔지만 말이다. 수업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배워갈 수 있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평소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활동들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서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다.

이화영 단원

**꼭꼭 개구리 댄스교실** *지금 키 키의 반에서 만나자*

**메롱 부떼떼\***  
 메롱 부떼떼 사사빠  
 랑오이 랑오이 하방루말랑 오이  
 루마바스양 칸양망아빠아  
 록소록소 나깡빨라카  
 랑오이 랑오이 랑오이 랑오이 랑오이  
 랑오이 부떼떼  
 루마바스양 칸양망아빠아  
 록소록소 나깡빨라카

\*부떼떼는 율창이라는 뜻의 따갈로그로, 이 노래는 우리나라 율창이 송의 따갈로그 버전이다.

*키 키고 실다면  
 부떼떼를 의척라*

문의 915-372-3298

바공포옥 초등학교 특집!

# 벌써 한달, 바공포옥은 어떤가요?

라온아띠 멤버들의 솔직담백 인터뷰

처음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아이들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재량활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느려 실망스럽기도 했고, 몇몇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산만했다. 이 활동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었다. 가끔씩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참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보면 더 놀아주고 싶고 아이들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는 '티처(선생님)'라는 호칭보다는 '쿠야(형, 오빠)', 아떼(언니, 누나)라는 호칭에 더욱 익숙하다. 이로써 우리는 아이들과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 친 언니, 오빠로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인 선생님 같은 다양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기뻐했다.

앞으로 아이들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또한 이들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싶다.

이화영 단원





# 우리 마을 초등학교에서 활동 시작

## C.M.Azcarate 초등학교 알아보기

우리는 현재 산파블로시티 바랑가이 VI-D에 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고 작은 학교들이 마을 곳곳에 있다. 우리집 1분 거리에도 씨엠 아즈카라테 초등학교(C.M.Azcarate Elementary School)가 있다. 방학하기 전 3월에는 학교 아이들이 집 앞까지 놀러 와 같이 놀기도 할 정도로 참 가깝다.

바공포옥 여름학교를 준비, 홍보하던 중, 바랑가이 VI-D에도 여름 학교를 열어줄 수 없냐는 요청이 들어왔다. 우리를 원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절이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공포옥과 비슷하게 씨엠 아즈카라테에서도 여름 학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바공포옥과의 차이점은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을 회관에서 씨엠 아즈카라테 학교에 입학 할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 활동을 요청하였고 씨엠 아즈카라테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준 것이다.

그만큼 마을 구성원들의 교육적 관심과 마을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바공포옥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마을을 돌아다니면 이 곳 저곳에서 만나는 동생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게 돼 무척 기뻐다.



우리는 영어와 예체능적 요소를 접목하여 창의적인 교육 자원 활동을 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씨엠 아즈카라테에는 바공포옥과는 달리 학생들의 연령대가 예비 초등 1년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이들의 수준이 비슷하다. 바공포옥과 씨엠 두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비슷하기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다. 기본적인 영어 알파벳 수업을 하고 수업 후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 될 수 있는 수업 외 활동을 하고 있다. 올바른 걷는 자세 배우기, 태권도, 동요, 율동 등이 그 예이다.

여름 학교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적 수준을 고려한 창의적 수업방식을 기획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어린아이들이기에 영어로 소통이 불가능하여 우리의 부족한 타갈로그어로 수업을 통제하고 진행하는 것 역시 힘들다. 통역을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타갈로그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업방식 역시 회의를 통해 현지 교육 상황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여러 교육적 자료를 준비해야 할 큰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달에는 커뮤니티 조직 활동의 일환인 교육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에서 뭣도 모르고 상상했던 것은 마냥 즐거운 수업이었지만, 현실에 부딪히니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난치고 버릇없는 아이들 통제하는 것도 힘들고, 언어적 소통도 안되고, 무엇보다 교육적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교육 준비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강호 단원 <akang18@naver.com>

# 송정원 단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

## 아우로라(Aurora) 커뮤니티에 대해

이나 우복 티 알칼라 (Inna Ubbog Ti Alcala)는 Mother's community in Alcala 라는 뜻의 일로카노(Ilokano)어로 돼지를 키우는 알칼라 지역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필리핀 YMCA는 커뮤니티 조직 사업으로 이 곳에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아띠들은 이곳에서 10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공적인 커뮤니티 조직을 배울 수 있었다.

### 왜 알칼라(Alcala)인가?

알칼라에서 커뮤니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이전 National General Secretary인 Eloisa D. Borreo의 여자 형제가 이를 YMCA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알칼라가 커뮤니티 조직과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 지급된 자금은 얼마인가?

총 216,000 페소로 한화로 6,500,000원 가량이 투자되었다. 이 돈은 기부가 아닌 대출된 돈으로서 3년 기한에 3% 이자로 대출되었다.

이 돈은 돼지의 개체 수를 늘리는 데 사용되어 현재 각 가정에서 6~9마리의 돼 지를 키우고 있다. 이전부터 생계수단으로 돼지를 키워왔고 어머니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돼지 키우기였기 때문에 돼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 회원 수는?

창설 당시 관심을 보인 사람이 50명 정도 되었으나 직업 훈련과 세미나 참석에 대한 부담으로 26명으로 감소했다. 커뮤니티 회원의 80%는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로 인해 회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커뮤니티 활동의 이점은?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또한 이 커뮤니티는 마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무언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개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 돼지 사육의 수익성은?

4개월 동안 키우면 돼지 무게가 5~60kg이 되는데 이 이상 지나게 되면 사료값이 2배 정도 더 들게 된다. 4개월 된 돼지는 P8,000 (₩240,000)인데 사료값이 P6,000 (₩180,000)이고 새끼 돼지의 경우 약값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순수익은 P2,000 (₩60,000) 이하이다.

송정원 단원

<kaizen20@cyworld.co.kr>





# 마리아 아우로라, 신기하다 마리아~

## 아우로라에서 겪은 다양한 문화

너 펌프질 해봤니?



세상에 아직도 저런 걸 쓰는 곳이 있다니! 여기 완전 시골이 구만!"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수도꼭지가 없다. 대체 이걸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은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이 때 옆에 보이는 작은 물통. 이 물을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 수압의 차로 인해 물이 올라온다고 한다.

휴 이 많은 걸, 물도 팔팔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닦지? 이 때 나 나이 글로리가 설거지 시범을 보여주신다. 작은 바가지 하나에 물을 담아 15인분의 그릇을 닦는다. 그 적은 양의 물로도 그릇은 신기하게 잘 닦인다.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은 물을 썼구나....." 한국과는 다른 필리핀의 물 사정. 물은 정말 물 쓰듯 쓰지 말아야 하는 것 같다.

이화영 단원

반짝이는 아우로라의 밤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 별빛을 가리는 불빛도 없고 하늘은 맑다. 하늘에는 검은 양탄자에 구멍을 잔뜩 뚫어 놓은 듯 별이 가득하다. 정말 예쁜 별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듯 하다. 하나 따서 내 주머니에 넣고 싶다. 맨눈으로도 별이 저렇게 잘 보이다니 이곳이 얼마나 깨끗한지 느껴진다.

앗 저기 노란 별뿔별이 떨어진다. 그런데 뭔가 움직임이 이

상하다. 사실 별뿔별이 아니라 반딧불이다. 반짝 반짝 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이런 아름다움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나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 곳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짧지만 깊었던 우리들의 반짝이는 밤은 아우로라에서의 또 다른 추억이 되었다.

이화영 단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

"아우로라에 온 둘째 날, 우리는 마을 사람의 초대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는 준비가 안된 채로 방문한터라 제대로 된 복장(검은색 정장 및 구두)을 갖추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문한 사람들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격식 있는 복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지 붉은색 옷만을 피할 뿐이었다. 장례 분위기가 한국에서보다 좀 더 자유스럽게 느껴졌다.

이튿날 우리는 장례행렬을 따라서 성당까지 함께 걸어갔다. 마을을 돌 때에 그 행렬을 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치기도 하고 중간 중간 그 행렬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함께 장례 일을 도왔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슬픔인 듯하다.

성당에 도착하여 장례식을 진행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돌아가신 분을 회상하는 자리를 갖는다. 부조에 대한 부담 없이 모두가 함께 그 사람을 애도하고 추억을 회상한다. 이곳에서의 장례식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듯 하다.

이화영 단원

일로카노?!

필리핀에는 1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필리핀의 표준어인 따갈로그어가 있지만 필리핀 북부 일부 지방에서는 일로카노어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필리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간 아우로라 알칼라 지역의 사람들은 일로카노어를 사용했다. 이제 조금씩 따갈로그어로 몇 몇 단어를 말하고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일로카노라는 또 다른 관문에 다다르고야 말았다.

하지만 언어는 말보다는 마음

으로 전달되는 것. 우리는 나나 이들의 눈빛과 행동으로 그들의 뜻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까? 결국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이화영 단원

# 오로라!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다!

아띠들, 지구촌 작은 마을 아우로라에 새로운 어머니들 생겨..

아우로라는 오로라라는 이름처럼 참 아름다운 곳이다. 드넓은 초원과 드넓은 초원처럼 사람들 마음씨도 참 곱다.

우리와 열흘 간 관계를 맺을 그룹은 "INNA, UBBOG TI ALCALA".

타갈로그도 아닌 일로카노를 쓰는 지역이라 의사소통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커뮤니티 조직을 배우러 왔다.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몸으로 부대끼면서라도 그들과 친해져야 했다.

## How?

우리가 아우로라의 커뮤니티를 배우러 온 것이라면 우선은 관찰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우선 아우로라 커뮤니티가 산파블로나 우리나라의 다른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몸으로 부딪치면서 보고, 듣고, 느꼈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생활 하는 지에서부터 다른 조직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하고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했다. 딱딱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그들과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관계 맺는 방법! 어렵습니다잉~!

## Let's!

이나이(어머니)분들은 참으로 친절했다. 매번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주시고 더운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풍기도 우리를 향해 틀어 주셨다.

아침에 가자마자 우릴 위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시는 이나이들. 그러면 우리도 그들 옆에 엉덩이를 갖다 대고 야채를 다듬기 시작한다.

음식이 하나 두 개씩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가 가졌던 질문들도 하나 둘씩 해소되고 서로간의 간격은 더욱 가까워진다.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손짓 발짓을 써가며 쓴 간단한 영어와 타갈로그를 번역했기에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나이들 모두는 아니지만 아침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항상 우리와 같이 있었다. 수업을 할 때만 떨어져 있었는데 피크닉을 갈 때엔 정말 하루 종일 볼

어 다녔다. 그래서일까, 처음의 어색함과 부끄러움은 싹 가시고 어느새 이나이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장난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만큼 의도한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이제 이나이들은 우리들의 또 다른 어머니들이다.

그녀들과 친해진 만큼 그녀들의 조직이 보였고 한 마디 말을 걸수록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그녀들의 조직은 참 밀접해 보였다. 라온아띠도 하나의 조직이기에 그녀들의 조직을 보고 배워서 더욱 돈독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열흘은 우리에게 몸의 언어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실히 심어다 주었고, 필리핀 작은 마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러 어머니들을 생기게 해주었다.

신의주 단원





# 교육활동, 예상치 못한 난관들

아우로라에서 우리의 교육활동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필리핀에서도 외곽지역인 이곳 아우로라 알칼라(Alcala)의 아이들. 도착하기 전, 우리는 이곳 아이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는 즐거운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곳에 일곱 번째로 방문하는 팀이기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 방학기간 중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났고, 옆친 데 댁친 격으로 마을에 큰 잔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칠 아이들이 없었다. 그래서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업 홍보를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커뮤니티 조직의 일환으로서 교육활동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과 이 지역 커뮤니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여러 교육활동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 한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사실에 이곳 커뮤니티의 생계수단인 돼지를 한 마리 전지에 크게 그린 후, 조각으로 나눴다. 아이들은 한 조각씩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이 각각의 그림을 한데 모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하는 활동을 했다. 함께 협동하면 커다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 미래 내 모습 그리기

15년 뒤 내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린 후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이다. 아이들이 미리 자신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협동 스트레칭

비슷한 전통놀이를 가진 한국과 필리핀의 여러 놀이와 한국에서 배운 춤 명상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파트너와 함께 힘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여 스트레칭 및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을 진행했다.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타갈로그어와 영어도 부족한 우리에게 제 3의 언어인 일로카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무례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의 행동이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관심 표현일 수도 있고, 아이들은 역시 아이이기엔 악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아우로라에 있는 시간도 짧고, 이런 상황에 지쳐 의욕도 작아졌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잡고 아이들을 마냥 받아주기보다는 조금씩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려 노력하였다.

의욕을 잃고 처음에 가졌던 잘못된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의 활동지인 산파블로시티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부터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로 잡고 언어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강호 단원

# 고민의 해답은 어디에?

지금까지 나는 어린 아이들과 이렇다 하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활동을 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는 사촌 동생들과도 제대로 놀아준 기억이 없다. 그런 내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까지 해야 한다니!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두려움이 앞섰다.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나에게 놀아달라고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간의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순간순간 보이는 아이들의 산만함에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고민을 잊고 떠난 알칼라(Alcala). 그 곳에서도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산파블로 시티(SanPablo City) 아이들보다 더 장난기가 많던 아이들이었지만 미술시간만 되면

신기하게도 조용하게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 간의 고민의 열쇠는 수업 콘텐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만만하게 바공포옥 초등학교(Bagong Pook ele.)로 돌아온 나는 혼자서 4~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아이들의 성향과 수준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겼다. 내 능력의 부족일까?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 내 강의는 아이들이 지루해 했고, 쉽게 지루해 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위해 도입한 게임 역시 아이들이 지루해 하며 다른 게임을 하자고 조르기 일수였다. 이번 활동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이 아이디어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4월의 활동은 매 순간순간이 도전이었고 고민의 연속이었다. 고민의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샌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내게 고민을 던져주었다. 수많은 고민들로 인해 내 목표인 "매 순간을 즐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두렵지만 차근차근 하나 하나 이루어내다 보면 활동하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고민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송정원 단원

- 前 짬 타이거 역임
- 前 해리포터
- 前 미스터리외 중심
- 現 필리핀 팀 동네북 담당

# 초심을 잃지 말자

4월은 본격적인 교육 활동을 시작한 달이다. 활동 초반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다. 하지만 매일 매일의 수업, 연필조차 쥐지 못하는 아이들, 수업중간에 나가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의욕은 떨어졌고 수업 준비조차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 분석'이라고 배워왔는데 나는 그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내가 아무리 창의적이고 재밌는 수업을 준비해가도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것.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필요

하다. 좋은 친구가 되겠다던 열심히 나를 몰아세우겠다던 초반의 결심은 잊어버리고 어느새 편안함만을 찾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4월의 중간을 보냈던 아우로라는 매우 더웠다. 더워서 지쳤고 웃음도 나오질 않았다. 특히 멍 때리기 일수였고 나나이분들과 이야기 할 때에도 실실 웃기만 할 뿐이었다.

트럭을 타고 집에 갈 때면 들이치는 바람과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곤 했는데 이때가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때였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나나이분들과 많은 정을 붙이지 못했고 아우로라를 떠나갈 때에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4월 한달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나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 것 같다. 몸도 마음도 이곳에 적응하다 보니 점 점 게을러지

고 있다. 좋은 친구가 되겠다던 열심히 나를 몰아세우겠다던 초반의 결심은 잊어버리고 어느새 편안함만을 찾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화영 단원

- 前 어지르기 대회 초대챔피언
- 前 YMCA 어깨 담당
- 前 삼각관계의 중심
- 現 필리핀 팀 섹시 담당



# 특별한 4월, 새로운 것에 눈뜨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4월.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와 함께 내 마음도 같이 달구어지기 시작했다. 여름방학 수업과 열흘간의 아우로라 생활 그리고 나를 혼란에 빠뜨렸던 발록. 3월 마무리를 하면서 이상하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했는데, 4월은 눈 코 뜰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 특히 중간에 끼어있던 아우로라에서의 생활은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에게 더욱 특별했던 순간이었다. 이나이들 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 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조금이라도 그녀들 곁으로 다가가려 했던 나에게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였는지 따갈로그도,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내게 이나이들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나를 에워쌌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들과 정이 깊게 들어 떠나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었다. 여름학교를 진행하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간신히 준비한 수업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꼬물 꼬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아이들도 간신히 간신히 알파벳을 쓰고 내 얼굴을 쳐다 볼 때, 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이들도 모두 열심히 이 순간을 임하는 구나라고 느꼈을 때의 환희란. 쌓여갈도 없고 눈도 짝 찢어지다 못해 축 쳐진 내 얼굴에, 이제는 동네 구멍가게를 가도 필리피노?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만큼 검게 그을린 내 몸뚱아리를 볼 때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도 못한 채 바보 같이 걸걸걸 웃어버리고 마는 내 모

습을 발견하곤 한다. 벌써 5월 이라니! 시간은 눈치도 없게 하염없이 빨리만 가는지. 시간을 붙잡을 순 없지만 가는 시간을 야속하게만 바라보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5월의 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Let's go 5월!을 외친다.



신의주 단원

- 前 발록 거주권
- 前 농민 담당
- 前 SPC 치과 틀니 VIP 회원
- 現 야쿠르트 아줌마 역임
- 現 필리핀팀 이나이 담당

## 이살의 프로젝트



후보 1. 잣 씻고 마실로 한잔 걸치려 가오신 혈수 아버지.



후보 2. 아이들 손이 눈밖에 못 가리는 채득.

# 진정한 마을을 느끼다

지난달엔 내가 자원 활동을 할 San Pablo City의 전체를 직접 보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찾아 해결하려는 기대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곳의 전체적인 문화를 잘 수용하고 습득할 수 있었다. 첫 달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나는 게스트가 아닌 마을 주민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과 현실의 차이점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해결하였다.

3월에는 전체적인 숲을 보아서였을까? 4월 한 달 간 직접 활동에 부딪히면서 부분을 느껴보니 3월에 했던 고민들 보다 더 큰 문제점들과 우리의 능력과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며 사실 조금 지치기도 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분명 있지만

우리의 주 활동인 교육 자원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언어적, 문화적 문제와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것들이 많아 지친 일들이 많았다. 사실 생활과 같은 겉모습의 불편함 보다 자원 활동 의미의 깊숙한 마음속으로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못한 내 자신이 싫었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편해지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 마음속의 고민들을 놓치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다. 이런 불안함과 지친 마음들이 조금 많아서였을까? 그만큼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3월에 부분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이 마을의 주민이 되겠다는 내 선부른 생각이 4월에 직접 현실에 부딪히면서 만만치

않은 큰 목표라는 걸 깨달았다. 아우로라에서도 산파블로시티에서도 그들의 정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금 더 진정한 의미의 자원 활동을 고민하여 조금씩 그 목표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강호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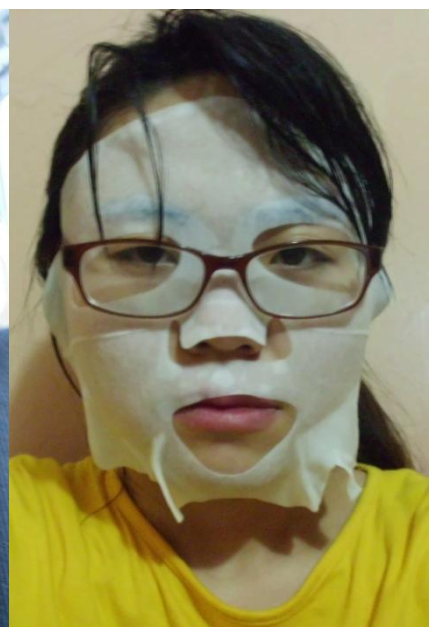
前 영보이 스트롱보이  
前 필리핀 팀 국방위원장  
現 술 취해 잠든 발룻 역임  
現 큰 머리 짧은 목 담당  
現 필리핀 팀 액반이 무너



후보3. 거성엔터레이먼트 소속 최초의 야쿠르트배달 아줌마.



후보4. 의자 사이에 낀 호빵 하거.



후보5. 섹시 고양이



# Simple life, but full of happiness

4월 월간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허 참, 3월 보고서 쓰자마자 벌써 또 4월 보고서가 끝났네요. 3월도 정말 빨리 지나갔지만, 4월은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이 빨리 지나가버렸습니다. 열흘간 아우로라 다녀오고, 수업준비 몇 번 하다 보니 어느새 4월의 끝자락입니다. 이리다 내일 눈뜨면 집에 돌아가야 할 날일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상. 삼팔록 호수 조깅 후 아침식사. 8시까지 바공포옥 초등학교 도착. 10시에 수업 끝.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씨엠 아즈카라데 초등학교 수업. 6시부터는 영어랑 타갈로그어 수업... 저녁 먹고 나니 어느새 8시. 내일 있을 수업 준비해야죠. 으잉, 어느새 잠이 쏟아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벌써 가버렸습니다.

3월과는 달리 4월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저희의 주 활동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써머스쿨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 일반 수업과는 차별화 된 수업을 하자 등 포부는 컸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유치원생도 채 되지 못하는 꼬맹이 아기들부터 초등학교 5학년생까지 너무나 다양한 연령대 때문에 준비해야 할 수업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영어로 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 안 되는 타갈로그어 단어 몇 개로 간신히 소통(?)해야 합니다.

게다가 제가 맡은 유치원 레벨의 아이들은 연필을 붙잡고 책상에 앉아주기만 해도 고마울만큼 통제가 어렵습니다. 특하면 뻑뻑 울다가 다시 배시시 웃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다가도, 조그만 손으로 내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다시 또 힘이 납니다. 말랑말랑한 볼, 꼬물꼬물한 손, 땡구르르 구르는 눈, 아이들의 그 모든 하나하나가 더운 필리핀 날씨에도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어제 필리핀엔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먹만 하게 쏟아지는 빗방울을 뚫고 우리는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옆집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서 처마 밑 떨어지는 빗물로 샤워하고,

서로 물 뿌리고, 물웅덩이 위에서 발 구르기도 하니 캐리비안 베이 간 것보다 더 재미있더군요. 한국에서는 장마철에 비가 오면 일단 짜증부터 팍팍 났었는데, 오늘은 어쩐지 비가 기다려졌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한 일상생활에 즐거움이라는 마술가루를 뿌려주는 것을 저는 필리핀에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마술가루를 뿌려주는 사람들을 필리핀에서 만나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4월도 지나갑니다.



김시연 단원

- 前 YMCA 할망고 역임
- 前 삼팔록 호수 생선
- 現 망고과다섭취로 당뇨의심
- 現 SPC 발룻 포즈대회 1위
- 現 필리핀 팀 큰 배 담당

